

19세기 미국 주도 아시아-태평양 세계의 부상에 대한 시론적 모색 ①

유성희**

세계체계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초록 본 연구에서 저자는 세계체계 분석에서 빠진 하나의 고리로서 19세기 미국 주도 아시아-태평양 세계의 부상을 주장한다. 그동안 세계체계 연구자들은 19세기를 유럽 국가들이 주도한 공간으로 묘사했고, 또 그중에서도 영국 중심의 글로벌 헤게모니가 위세를 떨치던 시기로 분석해왔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세계체계 내 새롭게 부상한 지역으로 아시아-태평양 세계를 상정하고, 이 지역이 떠오르게 된 원인을 찾는 데 있어 19세기 미국이 보여준 아시아-태평양 세계로의 팽창을 지적했다. 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본 연구는 지난 세계체계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수행했다.

주제어 세계체계 분석, 아시아-태평양 세계, 19세기, 미국

1. 서론: 세계체계 분석에서 빠진 하나의 고리, 19세기 미국 주도 아시아-태평양 세계의 등장

인류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공간의 축소라는 특징을 뚜렷이 보여주는데, 이는 교통 및 운송수단, 통신의 발전, 이주의 보편화 및 자본의 세계화라는 스케치 위에 문화, 언어, 생활, 소비패턴 등과 같은 독특하고도 새로

* 본 연구는 한경대학교 2023년도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리뷰어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한경국립대학교 브라이트 칼리지 조교수

운 그림들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19세기는 세계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는 특히 자본주의라는 경제구조와 결합되면서 더욱 세계사를 극적으로 변화시켰다.¹

세계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이론적 접근으로서 세계체계 분석가들은 19세기를 유럽의 세기로 규정짓곤 했다. 죠반니 아리기(Giovanni Arrighi)는 장기 19세기를 유럽 내 영국의 글로벌 헤게모니가 실현된 시기이자, 영국의 수출항 제국주의가 전성기를 구가한 시대라 정의내렸다.² 또한 영국은 네덜란드와 벌인 3차례의 전쟁 및 프랑스와의 경쟁에서의 승리, 산업혁명 및 식민지 팽창에 기초한 생산비용의 내부화와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통해 19세기 자본주의 세계체계를 이끄는 헤게모니 국가가 되었다고 아리기와 동료 연구자들은 평가했다.³

비슷한 맥락에서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 역시 19세기를 영국이 세계체계 내에서 헤게모니를 차지한 시기(전 세계 수많은 식민지를 획득하고, 또 한때 유럽의 금융 중심지였던 네덜란드의 역할을 종식시킴)로 규정지었다.⁴ 19세기의 또 다른 특징으로 월러스틴은 글로벌한 성격을 띤 이데올로기들(보수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이 등장한 시기라고 정의 내리는 한편,⁵ 동아시아를 비롯해 외부지역(external arena)에 위치한 지역들이 서서히 자본주의 세계체계로 편입해 들어오는 시기라 규정했다. 나아가 월러스틴은 이주민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의 탈식민화가 일어나고 끝이어 독립

1 아키라 이리에(2016), 조진구·이종혁 역,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연암서가, p. 41; 위르겐 오스트함멜(2021), 박종일 역, 『대변혁: 19세기의 역사풍경』, Vol. 1, 한길사, pp. 232-237.

2 Giovanni Arrighi (1994), *The Long Twentieth Century*, London and New York: Verso, p. 174.

3 지오반니 아리기·포궁 호이·크리쉬넨두 레이·토마스 에를리히 라이퍼(2008), 최홍주 역, 「지정학과 대형금융」, 『체계론으로 보는 세계사』, 모티브북, pp. 109-110.

4 이매뉴얼 월러스틴(2003), 김인중 외 역, 『근대세계체계 III』, 까치, p. 187.

5 이매뉴얼 월러스틴(1994), 성백용 역,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창작과 비평사, p. 26.

국가로 변형·발전된 시기(1763~1833) 또한 19세기의 주요 특징으로 손꼽았다.⁶

아리기와 윌러스틴이 지적한 19세기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특징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기는 대서양에 기반한 유럽세력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였다. 그렇기에 윌러스틴은 다음과 같이 결론내리기도 했다. “그리하여 50년간에 걸쳐 서서히 백인 이주민들은 서반구 전역에서 국가간 체제의 일부가 된 여러 국가들을 건설했다. 그 국가들은 모두 이런저런 방식으로 새로운 헤게모니 열강인 영국의 정치경제적 후견하에 들어왔다.”⁷

세계체계 관점에 기댄 후속연구들 또한 19세기를 유럽의 세기로 규정하는 데 있어 큰 이견이 없었다. 예컨대 16세기에서 20세기 동안 등장한 글로벌 헤게모니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로이 권(Roy Kwon)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결합한 헤게모니 인덱스(hegemony index)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글로벌 헤게모니 정점은 17세기에 시작되어 같은 시기 중반까지 지속되었고, 영국의 글로벌 헤게모니 정점은 18세기 중반에 시작되어 180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기는 20세기 초·중반에 시작되었다.⁸ 비슷한 맥락에서 사바스 카라타슬리 사한(Savaş Karataşlı Şahan) 또한 15세기 전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등장한 글로벌 헤게모니를 각각 ① 제노아-이베리아 체제시기(1450년에 시작되어 1625년에 최종적 쇠퇴기를 맞이함), ② 네덜란드의 체제 순환 및 글로벌 헤게모니 시기(1560년에 시작되어 1790년에 최종적 쇠퇴기를 맞이함), ③ 영국의 체제 순환 및 글로벌 헤게모니 시기(1760년에 시작되어 1929년에 최종적 쇠퇴기를 맞이함), ④ 미국의 체제 순환 및 글로벌 헤게모니 시기(1873년에 시작되어 현재에도 진행 중 - 2007-2008년

6 윌러스틴(2003), 3장과 4장.

7 윌러스틴(2003), p. 387.

8 Kwon, R. (2011), “Hegemonies in the World-System: An Empirical Assessment of Hegemonic Sequences from the 16th to 20th Century,” *Sociological Perspective* 54(4), p. 602.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글로벌 헤게모니가 작동 중이라고 평가)라고 평가내렸다.⁹

백승욱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한의 분석과 비슷하지만 글로벌 헤게모니 국가의 물질적 팽창기 및 금융적 팽창기의 다른 시간대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물질적 팽창 시기는 1640-1750년이고, 금융적 팽창 시기(징후적 위기에서 최종적 위기의 시기)는 1750-1790년대였다. 영국의 경우 물질적 팽창시기는 1790-1873년이었고, 금융적 팽창시기는 1873-1930년대였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물질적 팽창시기는 1930-1968/1973년 시기였고, 금융적 팽창시기를 1968/1973 - 현재라고 바라봤다.¹⁰

한편, 최근 연구로서, 네스톨 로드리게즈(Nestor Rodriguez)는 지난 800년 동안 인류 이동의 전 세계적 확산이 자본주의적 논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세계체계 내 패권 국가들의 통제력과 글로벌 이주 패턴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예컨대 영국의 글로벌 헤게모니 하에서, 대규모 제조업과 건설업에 기반한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하였는데, 이런 산업자본주의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①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국내 차원의 이주), ② 유럽 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산업노동이민자들의 발생(유럽지역 차원의 이주), 그리고 ③ 주변부 및 반주변부 지역 노동자들의 중심부 국가 산업도시 및 중심부 국가의 식민지 플랜테이션 지역으로의 이동(글로벌 차원의 이주)이 등장했다는 것이다.¹¹ 비록 로드리게즈가 글로벌 차원에서의 이주와 패

9 Şahan S. K. (2020), "Capitalism and nationalism in the longue durée: Hegemony, crisis, and state-seeking nationalist mobilization, 1492-201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61(4).

10 백승욱(2005), 「역사적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역사: 세계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그린비, p. 34.

11 Rodriguez, N. 2023. *Capitalism and Migration: The Rise of Hegemony in the World-System*, Cham,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AG, pp. 1-3. 그 외에도 미국, 라틴 아메리카 및 기타 세계 지역에서 농업과 목축업 등 새로운 생계를 꾸리려는 유럽인들도 이주행렬에 동참했다고 로드리게즈는 덧붙였다[Rodriguez (2023), p. 3].

권국가들의 헤게모니 사이의 상관성에 천착해 연구를 진행했지만, 그 또한 세계체계의 고전적 헤게모니 전환들(‘1625-1675년의 네덜란드 헤게모니’, ‘1815-1873년의 영국 헤게모니’, ‘1945-1970년의 미국 헤게모니’)을 고수했다. 간단히 요약하면, 로이 쿤, 사바스 카라타슬리 사한, 백승욱, 네스톨 로드리게즈의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들 모두는 기본적으로 19세기, 나아가 20세기 초까지 글로벌 헤게모니가 대서양에 기반한 유럽세력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체계의 맥락에서 우리가 놓친 중요한 연결고리가 존재하는데, 이는 다름 아니라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세계의 부상이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후 유럽인들의 신대륙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되던 16세기 때만 하더라도 태평양은 일부 유럽세력에게만 탐험이 허락된 신세계였다.¹² 비록 스페인이 처음으로 태평양 항로를 개척했다고 하지만, 19세기까지 태평양지역은 여전히 많은 제국주의적 세력들에게 미지의 세계였다. 그래서 19세기까지 태평양 지역은 유럽인과 미국인들의 활동(Euro-American activity)으로 그 정체성이 결정되곤 했다. 실제 서구의 역사

12 페르디난드 마젤란의 태평양 횡단을 계기로 스페인은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태평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후 필리핀 진출을 본격화했다. 당시 멕시코를 점령하고 있던 스페인은 필리핀과의 무역로를 연결했는데, 이는 처음으로 태평양 지역과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해양 교역로였다. 마닐라에 거점을 둔 스페인은 포르투갈과 함께 무역 경쟁에 나섰는데, 이들의 주요 대상국은 중국과 일본이었다. 주요 거래물품은 금, 은, 도자기 등이었다. 특히 스페인은 남미의 포토시(Potosi)에서 생산된 은을 태평양을 건너 중국에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기도 했다.

과학적 탐사의 측면에서 보자면, 태평양 탐험을 선도한 최초의 유럽세력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다. 포르투갈은 1610년 브라우어 루트 개척을 시발점으로 호주의 서부지역과 뉴질랜드 그리고 뉴기니의 남서부 일대를 탐사했다. 스페인은 앞서 언급한 아메리카 대륙과 마닐라를 연결하는 무역로를 개척함과 동시에, 아메리카 서쪽 해안 및 남서 태평양의 도서지역을 탐사했다. 1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영국이 본격적으로 탐사에 나섰는데, 영국은 북태평양과 오스트랄라시아 해안 등을 탐사하여 이 지역의 식민 가능성과 북태평양 지역의 자원(수달 및 고래)의 상업적 활용을 확인했다[정문수(2022), 「태평양 횡단의 역사(1494-1794)」 『글로벌지역학연구: 지역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학술정보, pp. 158-159].

문헌에서 태평양은 ‘스페인의 호수’(16세기부터 스페인이 아메리카 식민지를 매개로 태평양을 지배한 17세기까지), ‘영국의 호수’(18-19세기), 그리고 ‘미국의 호수’(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로 종종 묘사되었다.¹³ 그러나 19세기 이후부터 아시아와 태평양에 대한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또 미국의 태평양 및 아시아로의 진출이 본격화되자, 아시아-태평양 세계는 더 이상 대서양에 기반한 유럽인들의 내호가 되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딜릭은 아시아 주도로 시작된 태평양의 재창조를 아시아 지역의 부흥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주장했고, 태평양 또한 더 이상 유럽-아메리카의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¹⁴ 다만 딜릭의 경우, 19세기까지는 여전히 유럽-아메리카 세력이 태평양에 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하면서, 아시아 세력이 태평양의 주도적 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20세기 이후라고 바라봤다. 딜릭의 주장과 달리, 본 연구에서 저자는 19세기 말부터 미국은 유럽-대서양 세계와 한편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고자 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계체계 분석에서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19세기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세계의 등장 및 부상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에서 본 연구는 우선 세계체계 연구자들이 19세기 미국 주도 아시아-태평양 세계의 등장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비록 19세기 미국 주도 아시아-태평양 세계의 등장 및 부상에 대해 세계체계 연구자들이 관심이 없었다곤 하지만, 이들이 아시아 세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문외한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기존 연구들을 새롭고 비판적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왜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세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지를 본 연구에서 강조하면서 마무리 지으려 한다.

13 Dirlik, A. (1992), "The Asia-Pacific Idea: Reality and Representation in the Invention of a Regional Structure," *Journal of World History* 3(1), pp. 69-70.

14 Dirlik(1992), p. 73.

2. 왜 세계체계 연구자들은 19세기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세계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가?

2.1. 세계체계 연구자들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

세계체계 연구자들은 아시아-태평양 세계에 대해 부분적으로, 혹은 과편적으로만 관심을 가졌을 뿐, 미국 주도 아시아-태평양 세계를 자본주의 세계체계와 총체적인 맥락에서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여기서 부분적이라 함은 세계체계 연구자들이 지구사적 혹은 역사적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데 있어 아시아-태평양 세계를 자신들의 핵심적인 연구분야로 놓고 연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과편적이라 함은 세계체계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아시아 혹은 태평양 지역에 대해 논했을 뿐, 아시아-태평양 세계가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이정표적 분기점을 만들어냈다고는 생각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체계 연구자들이 아시아 세계에 결코 문외한은 아니었다. 오히려 세계체계 연구자들에게 아시아는 흥미로운 사례이자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 서유럽이 다른 비유럽지역들보다 갑작스럽게 앞서 나가기 이전까지 중국이 가진 기술력 및 과학적 발견이 유럽보다 앞서 있었다는 조셉 니덤(Johseph Needham)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윌러스틴은 왜 전근대 중국이 해외팽창에 관심이 없었는지(있었다 하더라도, 명나라 시대 정화의 해외원정처럼 일시적·단발적 사건에 머무르고 말았는지)를 설명했다.¹⁵ 더 나아가 그는 전근대 중국이 해외팽창 및 글로벌한 교역망에 기반한 자본주의 세계체계를 만들지 못한 이유로서 농봉제적 관료체제를 제시했다. 세계 제국(a world-empire)의 정치구조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은 정치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여겼기에, 제국이라는 틀 내부에서 모든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는

— www.kci.go.kr
15 이매뉴얼 윌러스틴(1999), 나종일 외 역, 『근대세계체계 I』, 까치, pp. 91-104.

것이다.¹⁶ 이런 이유로 중국 제국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만 했던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만들어 낼 수도, 또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공존할 수도 없었다고 월러스틴은 판단했다.¹⁷

아시아 세계에 대해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한 세계체계 연구자로는 조반니 아리기, 군더 프랑크, 자넷 L. 아부루고드가 있다. 우선 자넷 L. 아부루고드(Janet L. Abu-Lughod)는 13세기 세계경제(world economy of the thirteenth century)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그녀에 따르면 15세기 말 혹은 16세기 초 유럽에서 시작된 자본주의 세계경제 이전, 비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초국가적 상업무역망이 존재했다는 것이다.¹⁸ 이를 통해 아부루고드는

16 월러스틴(1999), pp. 105-106.

17 이와 반대로 유럽은 자본주의 세계체계를 탄생시킬 수 있었는데, 이는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근본원리를 낳고 배양할 수 있는 기반이 유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월러스틴은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다른 문명권들(위기 시 자신의 체제를 방어할 수 있는 체제 유지전략이 존재했지만)과 달리, 유럽의 봉건제는 위기가 도래했을 때 봉건제를 지속시키고 방어할 만한 기제들이 없었다는 것이다[월러스틴(1999), p. 56]. 즉 유럽 내 봉건제적 위기가 도래하자, 봉건제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를 극복할 만한 내부적 개혁운동이 사라진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과로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자본주의 세계체계라는 것이다. 실제 유럽 봉건체제의 끝 무렵에, 유럽의 영토 팽창이 본격화되었는데, 당시 유럽은 “해당 세계의 지리적 규모의 확대”(유럽지역을 넘어서는), “세계경제의 서로 다른 생산품과 서로 다른 지역에 적합한 상이한 노동 통제 방식의 발전,”(사치품이 아닌 필수품 교역의 증대),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핵심국가가 될 수 있는 비교적 강한 국가기구의 창출”(국가와 모험심 강한 자본가의 결탁)을 가능하게 했다[월러스틴(1999), pp. 66-67]. 유럽이 만들어 낸 초국가적 정치-경제체제는 자연을 변화시키거나 정복했고, 더 많은 자본을 만들기 위해 잉여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확장시켜 나갔다. 데이비드 랜더스(David Landes)는 이런 자본주의 체제를 가리켜 ‘고삐에서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라 칭했고, 칼라일(Carlyle)은 ‘(인간관계에 있어) 금전에 의한 결합’이 만들어진 세계라 언급했다. 마르크스(Marx)는 ‘끊임없는 자본축적을 탐색하는 체제’라 명명했고, 케인스는 자본주의 세계를 ‘(슈페터의 논의를 차용해) 기업가의 동물적 정신’이 지배하는 세계라 정의내렸다[Wallerstein, I. (1999), “The West, capitalism, and the modern world-system,” in Brook T. and Blue G. (Eds.), *China and Historical Capit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4-15].

18 Abu-Lughod, J. L. (1989), *Before European Hegemony: The World System A.D. 1250-135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4.

한편으로 16세기에 등장했다고 일컫는 유럽의 몰역사적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기원을 거부하고, 다른 한편으로 세계 경제에서 비유럽 지역의 역할을 재조명했는데, 특히 비유럽 중심의, 예컨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무역거래망이 만들어 낸 광대한 국제무역망이 16세기 유럽의 자본주의 세계체계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¹⁹

비슷한 맥락에서 배리 길스(Barry K. Gills)는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15세기 말 혹은 16세기 초 유럽에서 시작되었다는 윌러스틴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윌러스틴이 주장한 ‘국제적 분업의 통합’이 만들어진 시점은 훨씬 이전이라 주장했다.²⁰ 윌러스틴이 “1500년 이전의 국제 분업망”을 무시한 것과 달리, 안드레 군더 프랭크(Andre Gunder Frank)와 배리 길스는 “5,000년 세계체제”(the 5,000-year world system)를 제시한다. 프랭크와 길스는 세계체제의 의미에서 ‘세계’라는 것이 굳이 윌러스틴의 주장처럼 글로벌한 지리적 연결망으로 환원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세계’는 지역 간 연결망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²¹ 이렇게 볼 때 국경을 초월하는 무역과 이로 인한 이윤축적과정은 16세기 유럽 이전의 비유럽지역(아시아

19 “중요한 사실은 ‘동방의 몰락’이 ‘서방의 부상’에 선행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존의 체제(13세기 세계경제)가 분산되면서 유럽의(비유럽지역에 대한) 정복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양의 부상’을 단순히 서양의 기존 시스템을 수용한 것으로 보거나, 그 결과로서 유럽 사회의 내부적 특성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오히려 두 가지 역설적인 힘이 작용했다. 첫째, 13세기에 개발된 경로와 루트는 나중에 여러 유럽 강대국들에 의해 다시금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13세기 당시 유럽이 아직 주변국이자 약소국이었을 때, 비유럽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기본 토대를 유럽은 활용했다. 그래서 유럽은 굳이 시스템을 다시 발명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서구의 부상은 기존의 세계 경제가 재구성됨으로써 촉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Abu-Lughod (1989), p. 361].

20 Gills, B. K. (1995), “Capital and Power in the Processes of World History,” in Sanderson, S. K. (Ed.), *Civilization and World Systems: Studying World-historical Change*,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pp. 136-162.

21 Frank, A. G. and Gills, B. K. (1993), “The 5,000 year World System: An interdisciplinary introduction,” in Gills, B. K. and Frank, A. G. (Eds.), *The World System: Five Hundred Years or Five Thousan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 3.

포함)에서도 확인된다고 이들은 덧붙인다.²²

특히 군더 프랭크는 유럽을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아시아 지역(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등)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프랭크는 유럽의 합리성, 제도,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기술에 대한 “예외주의”를 비판하면서,²³ “초기 근대 유럽은 세계 경제에서 더 중요하지도 않았고, 어떤 면에서든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더 발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²⁴ 프랭크에게 브로델²⁵과 윌러스틴²⁶의 연구에서 핵심으로 간주되었던 유럽 중심의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전체 세계 경제”의 작은 부분(또는 주변적인 부분)에 불과할 뿐이었다.²⁷ 이런 의미에서 프랭크는 “세계를 포괄했던 아시아에 기반한 관점”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역설한다.²⁸

22 이는 소위 ‘하이픈 논쟁’으로 이어졌는데, 관련해 윌러스틴은 세계체계(world system)와 세계체제(world-system)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배리 길스와 안드레 군더 프랭크가 주장하는 세계체제(world system)는 5,000년에 달할 정도로 긴 역사를 기원을 가지지만, 윌러스틴의 주장하는 세계체제(world-system)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이기에, 그 속에 총괄적인 정치구조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시장을 통해 잉여가 재분배되는 글로벌한 경제체제를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한다[Wallerstein, I. (1976), “A World-System Perspective on the Social Scienc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27(3), p. 348]. 나아가 윌러스틴은 16세기 이후 유럽에서만 독특하게 시장 무역의 완전한 발전과 이에 기반한 경제적 우위를 확인할 수 있기에, 이를 가리켜 자본주의 세계체제라고 명명했다[Wallerstein, I. (1974b),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Concepts for Comparative Analysi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16, p. 391]. 다시 말해 윌러스틴은 - 길스와 프랭크의 주장과 달리 -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경우 16세기 이전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23 Frank, A. G. (1998),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4.

24 Frank (1998), p. 5.

25 Braudel, F. (1982), *Civilization & Capitalism: 15th-18th Century: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6 Wallerstein, I. (1974a), *The Modern World-system I*, New York: Academic Press.

27 Frank (1998), p. 5.

28 Frank (1998), p. 5.

프랭크와 함께 캘리포니아 학파(California School)²⁹에 소속되어 있던 케네스 포머란츠는 근세부터 19세기까지 기대 수명, 임금 수준, 소비패턴 등에서 영국과 중국(특히 양쯔강 유역)이 유사한 사회경제적 발전 패턴이 있었음을 제시하는 한편, 1800년 이전까지 서유럽이 인구학적 또는 자본축적의 측면에서 중국을 추월했다는 증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³⁰ 근대 이후 영국과 중국 양쯔강 유역의 발전경로를 비교분석하면서 그동안 유럽중심주의자들이 널리 받아들였던 ‘근대 이후 서유럽의 중국에 대한 경제력 추월’이라는 명제에 포머란츠는 과감한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1800년 이후 영국이 중국을 추월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포머란츠는 영국이 ‘우연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자원(첫 번째는 철과 증기 기관의 생산에 기여한 영국 석탄 매장, 두 번째는 대규모 노동력 및 실탄과 면화 거래의 증가를 가능하게 만든 신대륙의 자원)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우연적 요소가 아니었다면 영국은 1800년대에 중국을 추월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 1800년대에 이르러 증가한 전례 없는 인구수, 그로 인해 만들어진 농지 개발과 산림 벌채, 토양 고갈 등은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졌다고 포머란츠는 주장했다. 즉 영국과 달리 중

29 캘리포니아 학파란 이 학파의 주요 구성원들이 반유럽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구성원 다수가 한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연구했기에 만들어졌다. 캘리포니아 학파의 주요 구성원들과 그들의 저작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James Z. L. and Wang F. (2002). *One Quarter of Humanity: Malthusian Mythology and Chinese realities, 1700-200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omeranz, K. (2000).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Frank, A. G. (1998).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ong, R. B. (1997). *China Transformed: Historical Change and the Limits of European Experien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Goldstone, J. A. (1991). *Revolution and Rebellion in the Early Modern World*,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30 Pomeranz, K. (2000).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in the Asian Ag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31.

국은 “예외적인 자원보고”³¹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생태학적 돌과귀를 마련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중국이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시아(특히 중국이)가 가진 역량과 아시아 해양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세계 지역”(world region)에 관심을 쏟은 또 다른 세계체계 연구자는 아리기이다. 아리기는 전근대 시기 중국을 하나의 “세계 제국”(a world-empire)이라고 정의 내린 윌러스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근대 시기부터 중국제국이 이끌어온 인상적인 정치

경제 체제를 새로운 시각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국 제국 및 동아시아 지역의 독특한 발전 경로를 제시하기 위해 아리기는 마크 셀던(Mark Selden), 다케시 하마시타(Takeshi Hamashita), 그리고 카오루 수기하라(Kaoru Sugihara)와 같은 학자들이 주장한 “근면 혁명”(industrious revolution)³² 및 “조계항 네트워크”(treaty port network)³³에 주목했다.³⁴ 또한 그는 현대 중

31 Pomeranz, K. (2001), “Is There an East Asian Development Path? Long-Term Comparisons, Constraints, and Continuities,”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44(3), p. 322.

32 예를 들어, Ikeda, S. (1996), “The History of the Capitalist World-System vs. the History East-Southeast Asia,” *Review* 19(1): 49-77; Li, B. Z. (1998), *Agricultural Development in Jiangnan, 1620-1850*. New York: St. Martin’s Press; Selden, M. (2015), “East Asia in world history, 1750-21st century,” in McNeill, J. R. and Pomeranz, K. (Eds.), *The Cambridge World History Volume VII, Part 1*,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3-525; Sugihara, K. (2003), “The East Asian Path of economic development: a long-term perspective,” in Arrighi, G., T. Hamashita, and M. Selden (Eds.), *The Resurgence of East Asia: 500, 150, and 50 year perspectiv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78-123 는 동아시아 경제 모델(중국 포함)이 서구화된 개발 패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기하라는 중국이 서구 사회처럼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기계나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자신들이 가진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한 방식(노동 집약적 방법)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중국의 발전경로를 “근면 혁명”이라고 명명했다[Sugihara (2003), p. 84].

33 하마시타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주로 세 가지 요소가 상호 연결된 해양 지역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지역은 중국의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푸젠이나 광둥과 같은 연안 지역이고, 두 번째 지역은 닝보와 같은 연안 지역이며, 세 번째 지역은 나하(Naha), 광저우, 마카오, 홍콩과 같은 항구 도시이다. 나아가 하마시타에 따르면 19세기

국 경제성장의 주요한 원인으로서 화교 네트워크와 중국 노동자의 높은 숙련도 및 저임금비용에서 비롯된 노동집약적 체제를 손꼽았다.³⁵ 여기에 더해 1970년대 후반 중국의 성공적인 개혁·개방 정책으로 말미암아 19세기 내내 정체되어 있던 동아시아 경제 네트워크의 부활이 가능했으 아리기는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물리적 폭력과 독점, 착취, 그리고 자본의 끝없는 축적 및 자본가의 정부에 대한 우위를 바탕으로 한 서유럽의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과는 달리, 중국은 시장에서의 상품 교환을 특징으로 하는 장기적인 스미스주의적 경제 발전을 추구해왔고, 이는 자본가와 정부 간의 힘의 균형에 기반한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아리기는 결론내린다. 이런 관점에서 아리기와 비버리 실버(Beverly J. Silver)는 중국 문명의 르네상스가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추월하거나 미국의 패권과 관련된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³⁶

앞서 주장했듯, 윌러스틴, 아리기, 길스, 프랭크, 아부루고드는 전근대

중반부터 후반(1830년대~1890년대)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등장한 다자간 무역 네트워크와 청나라의 쇠퇴는 서구 열강의 끊임없는 침략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내부 역동성의 결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mashita, T. (2003), "Tribute and treaties: Maritime Asia and treaty port networks in the era of negotiation, 1800-1900," in Arrighi G., T. Hamashita, and M. Selden (Eds.), *The Resurgence of East Asia: 500, 150, and 50 year perspectiv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 23

- 34 Arrighi, G. (2007), *Adam Smith in Beijing: Lineag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Verso. 실제 아리기, 셀던, 하마시타 등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논리와 별개로 작동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독특한 경제적 역동성 및 발전경로를 보여주고자 노력했는데, 이들은 동아시아 역학의 독특한 궤적, 즉 세 가지 다른 시간적 배경(20세기 중반 이후 50년, 19세기 중반 이후 150년, 16세기 이후 500년)이 동아시아 내에서 상호의존적으로 작동되었다고 바라봤다.
- 35 Arrighi, G. (2009), "China's Market Economy in the Long Run," in Ho-fung Hung (Eds.), *China and the transformation of global capitalism*,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 42.
- 36 Arrighi, G. and B. J. Silver (1999), "Introduction," in Giovanni Arrighi and Beverly J. Silver (Eds.), *Chaos and Governance in the Modern World System*, Minnesota and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1-36.

시기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세계에 대해 나름의 식견을 제시했는데, 이들의 선구자적 연구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체계 연구자들의 아시아 연구가 여기서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프랜시스 모우더(Frances V. Moulder)는 세계체계적 관점에 기대어 근대 중국과 일본의 자본주의 편입과정을 비교 분석했다. 특히 그녀는 어떤 이유로 일본은 자립적인 근대화 및 산업화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는지, 반대로 중국은 왜 빠른 시간에 근대화를 달성할 수 없었는지를 설명했다. 우선 그녀에게 있어, 일본과 중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은 분리되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초국가적인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편입하게 되는데, 이 편입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나라를 따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모우더가 보기에 중국에 더 많은 압박감을 선사한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구조적 힘은 상대적으로 일본에는 덜 압박감을 느끼게 해주는 기회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모우더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편입 시기가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되었고, 또 중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의 정도(그리고 제국주의 세력들의 개입정도)가 일본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보다 자율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가능성이 적었다는 것이다.³⁷ 또한, 중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로의 편입은 아편무역부터 시작되었는데, 국내 아편 소비의 급증으로 인해 중국의 대외무역적자는 극심해졌고, 아편을 구입하기 위해 중국에서 화폐로 유통되던 은(silver)을 수출해야 했다고 그녀는 덧붙인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은 보유량은 줄어들었고 나아가 중국당국의 재정악화로까지 이어졌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여기에 더해 19세기 중국은 영국의 주요 생산품인 면화의 소비처인 동시에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

37 Moulder, F. V. (1977), *Japan, China, and the modern world-econom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viii.

이 앞다투어 자신들의 생산품을 팔려는 주요 시장이었다.³⁸

반대로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에게 관심이 덜 한 시장이었다. 양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일본과의 무역은 제국주의 열강에게 매력적이지 않았고, 주요 식민지 세력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 또한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³⁹ 또한 일본은 신속하게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중국과 달리 여러 식민지 세력으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일본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상황을 두고 모우더는 일본이 상대적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을 즐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⁴⁰

더 구체적으로 일본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을 논의한 이는 나가하라 케이지(永原慶二, Nagahara Keiji)와 피터 듀스(Peter Duus)이다. 케이지는 일본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편입되면서 수출지향적 재배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는데, 그에 따르면, 일본이 편입과정 동안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생사’와 ‘차’였다.⁴¹ 그리고 이런 일본의 생사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프랑스, 영국, 미국이었다. 생사, 차, 석탄과 같은 1차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일본은 서구로부터 현대 기술을 수입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산업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은 제조된 상품을 저개발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고 이들 국가로부터 식량과 원자재를 수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빠르게 반주변부 국

38 Moulder (1977), pp. 102, 105.

39 Moulder (1977), p. 97.

40 Moulder (1977), p. 150. 또한, 엘빈 Y. 소와 스티븐 치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은 중국보다 늦게 자본주의 세계 시스템에 진입했지만, 일본의 메이지 엘리트들은 신속하게 정부를 중앙집권화하고, 역동적인 경제 변혁을 단행했으며, 제국주의적 확장에 착수했다 [So, A. Y. and S. Chiu (1995), *East Asia and World-economy*, Newbury Park, CA: Sage Publishers, p. 57]. 그 결과, 일본은 통합 과정에서 주변국의 운명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다.

41 Keiji, N. (1980), *日本經濟史*, 東京: 岩波書店, p. 52.

가로 올라설 수 있었다.⁴² 한편 듀스는 서구의 진전된 기술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편입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메이지 유신 이전부터 막부와 번들은 서양의 침략에 대비하고 국가방위를 강화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외국 군함, 소형 무기, 탄약 등을 수입했다. 심지어 증기 기관과 제련소를 만들려고 하였다. 이는 메이지 정부하에서도 지속되었다. 이렇게 서구로부터 들어온 첨단 기술로 인해 일본은 산업화 및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었는데, 이런 선진화된 기술들을 서구로부터 들여오기 위해 일본은 더욱 서구에서 원하는 원재료들(생사나 차 등)들을 수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은 서서히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편입하게 되었다고 듀스는 평가했다.⁴³

케이지가 일본이라는 하나의 국가(지역)에만 관심을 두었다고 한다면,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는 제국주의 팽창 시절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세계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보다 관심을 보였다. 커밍스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19세기 말에(자본주의 세계체계에 내) 반주변부”였고, 1945년까지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를 자신들만의 경제권으로 삼았다고 지적한다.⁴⁴ 그러면서 처음에는 한국을 내부 식민지로, 그 다음으로는 만주를 추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초국가적 경제체계를 만들어갔다고 주장했다.⁴⁵ 비

42 Trimberger, E. K. (1978), *Revolution from Above: Military Bureaucrats and Development in Japan, Turkey, Egypt, and Peru*, New Brunswick: New Jersey, pp. 124-125. 일본은 해외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노동자와 농민을 혹독하게 착취하기도 했다[Duus, P. (1976), *The Rise of Modern Japa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p. 151]. 예를 들어, 일본의 수출 지향적 실크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는 광범위한 기술 변화, 제도적 지원, 지리적 이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실크 산업에서 일본 노동자들의 가혹한 착취가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Eng, R. Y. (1986), *Economic Imperialism in China: Silk Production and Exports, 1861-1932*,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43 Duus, P. (1995), *The Abacus and the Sword: The Japanese Penetration of Korea, 1895-1910*, Berkeley, Los Angeles, CA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8-19.

44 브루스 커밍스(1986), 김자동 역,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p. 35.

45 커밍스(1986), p. 35.

스한 맥락에서 듀스 또한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팽창은 일본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일찍 산업화된 일본이 경제적·전략적으로 서구 선진국들과 어깨를 겨눌 수 있었던 이유로서 동아시아 시장으로의 쉬운 접근을 지적했다.⁴⁶

한편, 근대 시기 중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도 있다. 딜립 바수(Dilip Basu)는 영국, 인도, 중국 간의 삼각 무역을 중심으로 중국이 아편 거래에 어떻게 관여하게 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자간 무역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아편은 쌀이나 당밀로 대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글로벌한) 무역 상품이 되었다.”⁴⁷ 바수는 아편 무역이 어떻게 중국의 자본주의 편입과정을 촉발시키는 분수령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더 구체적으로 중국의 편입과정을 서술한 이는 앨빈 Y. 소(Alvin Y. So)였다. 앨빈 Y. 소는 19세기 중국의 편입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 경제적 편입과 정치적 편입을 구분한다. 그가 이렇게 중국의 편입과정을 정치적-경제적으로 구분한 이유는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편입되어 갔지만, 정치적으로는 편입되지 않았음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정치적으로 편입되지 않은 근거로서 소는 중국 남부지역에서 등장한 반서구적 저항운동들, 예컨대 첫째로 1841년의 삼원리 사건,⁴⁸ 둘째로 서구 열강의 침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신사계급 주도의 민병대를 제시했다.⁴⁹ 나아가 비록 1, 2차 아편전쟁에서의 패배, 외국 조계지의 건설, 그리고 수출지향적 생사(生絲) 산업의 등장에도

46 Duus (1995), pp. 19-20.

47 Basu, D. (1979), “The Peripheralization of China: Notes on the Opium Connection,” in Goldfrank W. L. (Eds.), *The World System of Capitalism: Past and Present*,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p. 177.

48 이에 대해서는 So, A. Y. (1984), “The Process of Incorporation into the Capitalist World-System: The Case of China in nineteenth century,” *Review* VIII(1), pp. 98-99 참고.

49 So (1984) p. 111.

불구하고, 중국 제국은 1894-1895년 일본과의 전쟁(청일전쟁)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제국의 형태를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도 조선 등과 지속적인 조공체제를 유지했다는 점에서—경제적 편입과 달리—정치적으로는 편입되지 않았다고 그는 주장한 것이다.

나아가 스테판 치우(Stephen Chiu)와의 공동연구에서 소는 중국의 정치 및 경제 통합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했다. 이들은 중국 통합 과정의 역사적 서술을 제안하면서 중국 남부지역에서 성행한 생산산업의 부상, 아편전쟁의 영향, 서구 선교사들의 침투 등을 열거하지만, 중국이 결코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주변부 국가로 전락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⁵⁰ 비록 중국 제국이 예기치 못한 지정학적·지경학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에 편입되었지만, 정치적·문화적 측면은 약화되지 않았는데, 그 하나의 예로 제국이 유지해온 뿌리 깊은 가치 문화(예를 들어, 강력한 유교 이데올로기)를 들었다.⁵¹

한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과 관련해서는, 이재광과 유성희의 연구가 있다.⁵² 이재광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일본과 중국, 한국의 개항 시기가 비슷했음에도, 어떻게 서로 다른 발전경로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연구질문으로 던지면서, 일본과 한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을 비교연

50 So and Chiu (1995).

51 이와 달리, 중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에서 정치적-경제적 편입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연구로서는 유성희의 연구가 있다[Ru, S. H. (2020a), “China’s Incorporation Process into the Capitalist World-Economy, 1780s-1890s, PhD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나아가 모테기 도시오 또한 19세기 동안 중국은 지속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었고, 또 근대적 질서로의 강제적 편입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모테기 도시오(2018), 박준형 역, 『중화세계 붕괴사: 19세기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재편』, 와이즈플랜].

52 이재광(1996), 「19세기 세계체계의 변동과 한국·일본의 자본주의 편입과정 비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Ru, S. H. (2022), “Historical Geographies of Korea’s Incorporation: The rise of underdeveloped and modernized colonial port cities,”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76.

구했다. 나아가 이재광은 19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편입과정을 두 개의 서로 다른 국제관계(유럽 중심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vs 중국 중심의 조공체계)의 충돌과 하나의 소멸(중국 중심의 조공체계)로 그리면서, 한국과 일본의 편입과정이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일본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과정과 그에 따른 근대화·산업화 과정은 한국으로의 식민지 팽창과 그에 따른 한국의 자원수탈과정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광은 19세기 편입 이후 일본이 어떻게 주변부에서 빠르게 반주변부로 올라서게 되었는지, 반대로 한국은 어떻게 일본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는지를 세계사적 전망에서 분석했다.

한편, 유성희는 한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이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팽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이재광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자본주의 편입 당시 주요 항구도시들의 상반된 발전과정을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목포와 군산은 한국의 편입과정 동안 식민지적 착취에 동원되는 도시적 특징을 띠고 있었고(그래서 종속적 발전이 일어났고), 반대로, 부산과 인천과 같은 도시는 식민지적 근대화 및 산업화의 특징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국가단위의 분석보다 세밀한 도시적 접근이 한국의 자본주의 편입을 해명하는 데 유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과 관련해서는 카 치밍(Ka Chih-Ming, 柯志明)의 연구가 있다. 카 치밍에 따르면, 한국과 유사하게 대만 또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편입하게 되는데, 일본 식민지하에서 대만은 이중 경제구조를 만들어냈다고 그는 주장한다. 1895년부터 1925년까지 대만 내 수출지향적 설탕생산은 대만의 저개발을 초래했지만, 1925년 이후 일본 식민지 정책 하 대만의 쌀 생산으로의 전환은 쌀 생산 농가들의 생활수준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그는 언급했다.⁵³

— www.kci.go.kr
53 Ka, C. M. (1995), *Japanese Colonialism in Taiwan: Land Tenure, Development and*

한편 수잔 그린할(Susan Greenhalgh)은 대만의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편입이 1858년부터였다고 언급한다. 2차 아편전쟁 이후 베이징과 텐진조약에 의거해 청 제국은 대만 항구를 개항해야 했는데, 이때부터 대만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이 시작되었다고 그녀는 바라본 것이다.⁵⁴ 당시 대만 북쪽지역에서의 수출지향적 차(tea) 재배는 상당했는데, 중국 해관자료(China Imperial Maritime Customs)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15년 전만 해도 산에 차나무가 있는 것을 보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산을 덮을 정도로 차나무가 많다.”⁵⁵ 그리고 당시 전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소비하던 영국은 가장 많은 배를 대만으로 보내 이곳에서 생산하는 차를 본국으로 가져갔다.⁵⁶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린할은 대만의 편입 이후 어떻게 대만이 발전해왔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일본은 동아시아에 경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함으로써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그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1945년부터 1949년까지의 짧은 과도기를 거쳐, 1949년 중국 본토에서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이전되면서 대만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사실상 독립적인 행위자가 되었다. 1950년대에 이 섬은 세계 시스템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었다. 제한된 양의 가공된 원자재를 수출하는 한편, 수입 대체를 통한 내부 개발에 집중했다. 1951년부터

Dependency, 1895-1945, Boulder.

- 54 Greenhalgh, S. (1988), “Supranational Process of Income Distribution,” in Winckler, E. A. and Greenhalgh, S. (Eds.), *Contending Approaches to the Political Economy of Taiwan*, Armonk, New York, London: M. E. SHARPE, pp. 67-100.
- 55 *China Imperial Maritime Customs* (1878), Statistical series, No. 4, Reports on trade at the treaty ports, p. 211.
- 56 MCARAROT: Huang, F, Lin MH, and Ueng JI. (1997), *Maritime customs annual returns and reports of Taiwan, 1867-1895*, Vol. 1, 2, Taipei: Institute of Taiwan History, Academia Sinica.

터 1965년까지 대만은 미국의 대대적인 해외 원조를 받았는데, 이는 대만의 발전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 1960년대 초반, 대외 무역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고, 1970년대 초반, 대만은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 반주변부로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저임금,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수출에서 고임금, 기술 집약적, 자본 집약적 중간재 수출로의 전환을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은 투자, 해외 원조, 자본 집약적 무역을 성공함으로써, 장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⁵⁷

한편, 러시아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과 관련해서는 윌러스틴과 박지배의 연구가 있다.⁵⁸ 윌러스틴은 18세기에 러시아가 서서히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편입되어 갔다고 언급했는데, 역사적 증거로서 그는 “① 수출 및 수입의 새로운 유형, ② 좀 더 규모가 큰 경제적 기업들(혹은 경제적 의사결정체들)의 창출, ③ 노동력 강제의 상당한 증가”⁵⁹를 제시했다.⁶⁰ 우선 수출 및 수입의 새로운 유형과 관련해, 18세기(1750-1850년 사이)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의 무역증대를 윌러스틴은 언급했다. 이 시기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은 대마와 아마였는데, 이는 영국 제조업 및 프랑스 산업의 주요한 원료가 되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에 이르자 러시아의 철 또한 중요한 수출품이 되었다. 다만 19세기 영국의 기술혁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러시아산 철을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되자, 러시아는 철 대신 다른 수출품인 밀을 생산해 수출

57 Greenhalgh (1988), pp. 75-77.

58 이매뉴얼 윌러스틴(2003), 김인중 외 역, 『근대세계체계 III』, 까치; 박지배(2017), 『근대세계체계에서 러시아와 영국의 무역』, 신서원.

59 윌러스틴(2003), p. 210.

60 물론 러시아를 아시아 지역으로 볼 수 있을지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를 아시아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윌러스틴이 언급했듯, 러시아의 동방진출은 러시아로 하여금 자본주의 세계체계 내에서 반주변부로 올라서게 만든 주요한 지정학적·지경학적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점은 18세기 말부터 러시아의 무역파트너가 중심부 국가였던 영국에서 당시 반주변부 국가였던 스코틀랜드 및 미국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월러스틴은 이를 두고 러시아와의 교역을 통해 스코틀랜드와 미국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스코틀랜드와 미국은 반주변부로서의 힘을 키울 수 있었다고 언급한다.⁶¹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적 의사결정체들과 이들이 만들어낸 강제노동구조가 있었는데 이는 다름 아니라 러시아 농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영주들과 바뀐 농노제 형태(“오브로크”에서 “바르슈치나”로의 전환)였다.⁶² 영주들은 바뀐 농노제 형태의 변화를 이용해 환금작물을 훨씬 더 쉽게 채배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바르슈치나의 증가는 농민들의 땅빼기를 희생시켜가며 영지의 팽창”⁶³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영주의 토지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또 외부로부터의 곡물 수요에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러시아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편입에서 눈여겨볼 특징으로 월러스틴은 러시아가 주변부가 아닌 반주변부로 편입되었음을 지적한다. 18세기를 전후로 러시아는 한편으로 서유럽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다른 한편으로 “남동유럽, 흑해, 캅카스 지역에서의 지배권과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편입과정에서 러시아는 전자보다 후자에 집중함으로써, 서유럽에게는 원료를 제공하는 주변부였지만, 동시에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시키려 했던 남동유럽, 흑해, 캅카스 지역과의 관계에서는 중심부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그 결과 러시아

61 월러스틴(2003), pp. 216-217.

62 월러스틴에 따르면, 18세기 말부터 러시아의 농노제 형태가 오브로크(obrok: 현물 및 화폐지대)에서 바르슈치나(barshchina: 노동지대, 즉 부역)로 전환되었다고 한다[월러스틴(1999), p. 237].

63 월러스틴(2003), p. 245.

는 “여타 편입 지역권들보다 국가 간 체계상 그리 약하지 않은 지위를 누렸고, 이것이 결국 러시아 혁명을 추진하는 능력”으로까지 나아갔다고 윌러스틴은 진단했다.⁶⁴

박지배 또한 윌러스틴이 주장했던 ‘영국과 러시아의 무역 교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18-19세기에 러시아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이 본격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박지배에 따르면, 영국-러시아의 무역은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었다는 것인데, 영국은 러시아와의 무역을 통해 영국 내 건설업과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원자재들(대마, 아마, 수지, 철, 목재 등)을 가져올 수 있었고, 또 러시아의 곡물 수입으로 인해 영국 내 곡물가격 상승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대영국 수출은 러시아의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는데, 무엇보다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생산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다.⁶⁵ 다만 윌러스틴과 달리 박지배는 비록 러시아가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윌러스틴이 주장한 ‘중심부(유럽)-주변부(러시아) 사이의 불균등한 교환관계로 인한 주변부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적 저발전과 약한 국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한다.

“러시아 국가는 매우 강력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러시아는 유럽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던 나폴레옹의 압박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나라였고, 전후 반체제를 주도한 나라였다. 또한 나폴레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중립국무역을 통해 대륙봉쇄체제에서 탈피했으며,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나폴레옹 군대, 사실상의 유럽동맹군과 싸워 승리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러시아 국가는 영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펼쳤고,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산업 발전을 고려하여 관세정책에서 나뉘 산업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했다.”⁶⁶

64 윌러스틴(2003), p. 284.

65 박지배(2017), pp. 422-423.

66 박지배(2017), p. 427.

이런 맥락에서 박지배는 러시아 국가가 경제적으로 주변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유럽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월러스틴이 지적한 ‘주변부로서의 일반적 특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서유럽 경제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유럽에 의해 일반적으로 조종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⁶⁷

마지막으로 세계체계 연구자들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가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게 된 요인을 찾는 데서도 세계체계 분석을 접목시켰다. 예컨대 임현진, 윤상우, 월러스틴 등은 냉전시기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설명할 때 중심부 국가와의 이해관계 및 반공주의 전략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국제적 노동분업의 재구조화를 주장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을 ‘초대에 의한 발전’(development by invitation)이라 명명했다.⁶⁸ 이는 세계 자본주의 세계체계라는 위계적 구조 속에서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이 공통으로 종속적 발전 혹은 발전주의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 헤게모니 속에서 만들어진 냉전이라는 이념적 대립 구도 속에서 어떻게 동아시아 국가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고,⁶⁹ 또 여기에서

67 박지배(2017), p. 427.

68 임현진(1993), 『제3세계연구: 종속, 발전 및 민주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윤상우(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 Wallerstein, I. (1992), “Geopolitical Strategies of the US in a Post-American World,” *Humboldt Journal of Social Relations* XVIII(1), pp. 217-233.

69 백낙청(1998),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 비평사; 백낙청(2009), 「한반도에서의 식민성 문제와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 『이중과제론: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 창작과 비평사, pp. 29-50. 세계체계적 관점에 기초해 백낙청은 ‘한반도 분단체제론’을 설명한다. 한반도 분단체제란 자본주의 세계체계라는 전 지구적 동학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국지적 현상이다. 백낙청에 따르면, 해방 전후부터 한반도에 거주한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부의 힘과 의지에 따라 한반도가 갈라지는 경험을 해야 했고, 전쟁을 치러야 했으며(물론 김일성의 적극적인·주도적인 남침계획이 있었지만), 또 그에 따라 60년이 넘게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 한국사회가 오랫동안 유지시켜 온 한반도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백낙청은 지적하는데[백낙청(1998), pp. 21-22], 분단체제의 극복이 우리들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주장한다. 분단체제가 오롯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에 대한 극복 또한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대한 대안들과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에 대해 세계체계 연구자들은 관심을 보였다.⁷⁰

2.2. 세계체계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한계점: 19세기 아시아-태평양 세계에 대한 무관심

앞절에서 저자는 간략하게나마 세계체계 연구자들의 아시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았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체계론자들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통된 하나의 한계점을 꼽아 보자면, 대다수의 세계체계 연구자들은 아시아를 종종 대륙에 기반한 하나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지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이다. 물론 첫째로, 윌러스틴이 제기한 질문인 ‘해양세계로의 진출에 있어 중국제국이 서구 유럽보다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유럽과 달리 중국은 왜 해양세계의 연결망(필수품들이 교역되는 글로벌한 교역망체계 및 초국가적인 노동분업체계)을 통해 자본주의 세계체계를 만들지 못했는가?’, 둘째로 아리기의 관심사인 ‘서구유럽세계와 구분되는 동아시아 내부의 장기적인 인적·물적 네트워크 연결망이 만들어낸 동아시아의 독특한 발전경로가 어떻게 중국으로 하여금 스미스적 발전양식으로 이어지게 했는가?’, 셋째로 동아시아 발전

다. 즉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존속되는 한, 남과 북이 제도적 통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부과하는 압박과 외부적 힘에 의해 또 다시 분열과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문제는 해결책인데, 그는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가진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는 데 있어 그 해법이 유럽문명에서 나온 어떤 가치와 문화, 사상, 제도가 아닐 수 있다고 보았다. 한반도나 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문명적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동아시아의 전통적·전근대적 가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은 아니라고 언급한다. 다만 동아시아 문명이 가진 유산을 그 시작점으로 놓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인다[백낙청(2009), pp. 49-50].

70 백승욱(2020), 「미국해계모니 형성기 동아시아 국가간체계 질서의 변동: 윌러스틴의 이론 자원으로 검토한 냉전 형성 과정과 중국 변수」, 『아시아리뷰』 10(2).

국가를 둘러싸고 세계체계 연구자들이 던진 질문인 ‘미국의(태평양지역) 헤게모니 하에서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의 글로벌 무역망은 어떻게 형성·발전되었는가’ 등은 직·간접적으로 아시아와 해양세계를 연결하는 연구주체들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아시아를 해양세계와 연결시키고, 또 이 과정에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어떻게 아시아-태평양 세계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가를 연구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시 말해 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쏟은 다수의 세계체계 연구자들은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지역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고,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놓고 연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자본주의 세계체계 내 19세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등장과 부상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았다.

돌이켜 보면, 이는 윌러스틴의 『근대세계체계』 연구가 제대로 끝맺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윌러스틴은 『근대세계체계』 3권을 마무리하는 맺음말로써 미국의 등장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비록 미국이 영국의 부관, 그래서 또한 잠재적이고 경쟁자의 역할로 자신을 부각시킬 수는 있었지만 말이다.”⁷¹ 그리고 끝이었다. 이후 윌러스틴은 미국이 어떻게 영국의 경쟁자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나아가 어떻게 미국이 글로벌 헤게모니를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 실제로 윌러스틴은 스스로 끝내 마무리하지 못하고 간 『근대세계체계』 5권에 담길 몇 가지 새로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 바 있다.

이 강조점 때문에 이 책에서 다루려고 했던 세 가지 이야기를 5권으로 미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아프리카를 향한 투쟁과 민족 해방 운동의 부상, 패권국 영국을 계승하기 위한 미국과 독일의 경제적, 정치적 경쟁과 미국의 최종 승리, 그리고 20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편입과

71 윌러스틴(2003), p. 387.

주변화, 그리고 부활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19세기 중반에 시작된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1914년에 어떻게든 끝난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다. 19세기에 시작된 이 이야기들은 2세기에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1914년은 세 가지 이야기 자체의 전환점이 아니다. 각 이야기의 핵심은 상승과 쇠퇴, 또는 쇠퇴와 상승의 큰 곡선 속에 있을 따름이다. 어쨌든 나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각각 긴 20세기의 이야기, 즉 **영국의 세기가 아닌 미국의 세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 지금 내가 예상하는 대로 5권이 1873년부터 1968/89년까지를 다룬다면(집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지만), (그리고)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다면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주제로 하고 1945/1968년부터 21세기 중반, 즉 2050년까지를 다룬 6권이 나와야 할 것이다.⁷² (강조는 논자).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근대세계체계』 5권에는 첫째, 아프리카를 향한 투쟁과 민족 해방 운동의 부상, 둘째, 패권국 영국을 계승하기 위한 미국과 독일의 경제적-정치적 경쟁과 미국의 최종적 승리, 셋째, 동아시아 국가들의 편입과정과 주변부화,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동(반주변부 및 핵심부로의 이동)과 같은 내용들이 주로 담길 예정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감안할 때, 우리는 왜 월러스틴이 19세기 아시아-태평양 세계에 대한 부상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다. 즉, 월러스틴은 후속작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등장을 그리고, 또 동아시아 국가들의 편입과정 및 주변화, 동아시아 세계의 부상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대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세력과 구분되는 아시아-태평양 세계의 부상을 다루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미완의 작업으로 남고 말았다.

72 Wallerstein, I. (2011), *Modern World-System IV*,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xvi-xvii.

조반니 아리기 또한 19세기 아시아-태평양 세계의 등장을 세계체계적 차원으로 분석하지는 못했다. 아리기의 경우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내 핵심부 국가들의 역할을 상세히 서술하면서, 이들이 만들어간 글로벌 헤게모니의 상승과 쇠퇴에 관심을 두었다.⁷³ 다만 아리기 역시 미국이 주도한 새로운 지정학·지경학적 팽창지역인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공간에는 관심이 덜했다. 또한 그의 다른 연구에서 아리기는 동아시아 국가의 고유한 유산과 상호의존성으로 ‘특수한 유기적인 정치경제적 통일성’을 강조했지만,⁷⁴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편입하게 되었는지, 나아가 아시아가 어떻게 태평양으로 팽창을 해 온 미국과 연결되었는지를 다루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리기가 주목한 중국의 스미스적 발전경로 및 중국의 부상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아시아와 태평양 세계를 연결하려는 이론적 관심은 찾기 어려웠다.⁷⁵

그러나 아시아를 태평양과 연계시키고, 또 세계체계의 역사 속에서 아시아를 해양세계와 연결시키는 작업은 중요하다. 하세봉은 해양 아시아의 연구가 “사료의 실증을 넘어선 이질적인 세계를 포괄하는 넓은 구상력, ‘다양한 근대’를 준비한 아시아의 독자적인 탐구, 대외관계사적 시각의 탈피, 폐쇄된 틀 속, 중심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입장의 거부”라고 평가하며,⁷⁶ 해양사가 우리에게 새로운 아시아를 해석할 수 있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73 Arrighi (1994).

74 Arrighi, G., T. Hamashita, and M. Selden (2003), “Introduction: the rise of East Asia in regional and world historical perspective,” in Giovanni Arrighi, Takeshi Hamashita, and Mark Selden (Eds.), *The Resurgence of East Asia: 500, 150 and 50 year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 9.

75 Ru, S. H. (2020b), “Sorry, But G. Arrighi Is Not Almighty: Why Did He Fail to Explain China’s Process of Incorporation into the Capitalist World-Economy?” *Journal of Asian Sociology* 49(2).

76 하세봉(2016), 「새로운 상상의 가능성: 해양사 연구」, 『역사와 경계』 101, p. 275.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와 해양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단지 과거를 재해석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⁷⁷ 즉 근대 세계의 도래 이전에 아시아 국가들이 해양세계를 어떻게 개척했는지, 그리고 어떤 해상무역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는지에서 연구를 마칠 것이 아니라, 근대 이후 아시아가 어떤 해양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나아가 이것이 작금의 시대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동학들을 만들어냈는지를 분석해야 할 때이다.

해양사적 망원경을 통해 근대사에 새겨진 여러 굴곡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본 연구는 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하나의 시론적 연구를 보여주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저자는 19세기부터 시작된 아시아-태평양 세계의 결합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함께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세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9세기라는 이전 시기가 독립적으로 혹은 별개로 존재한 것도 아니고, 이후에 진행된 시기(20세기와 21세기)들에 대해 어떤 시대적 전제조건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으로 19세기는 그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에 놓여 있는 하나의 시-공간적 틀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저자가 19세기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세계로의 진출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시아와 태평양이 처음으로 결

77 이와 관련해 근대 이전으로 시기를 소급할 경우, 중국과 다른 여러 지역들(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등)을 연결한 해상무역 네트워크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한 예로 기원전부터 남해 무역(the Nan Hai Trade)에는 중국의 광둥, 광서, 해남,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참가했다 [Nolan, P. (2015), "The Silk Road by Land and Sea," *Horizons: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4, p. 147]. 그뿐만 아니라 송 왕조(960-2170) 시절, 중국은 거대한 원양 상선의 안전을 위해 대형 정크선을 만들어 사용했다. 이 대형 정크선은 "티크와 건조되었고, 여러 수밀횡격벽(水密橫隔壁), 5개 이상의 돛대, 수심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용골, 현수타, 추진설비인 고(篙), 장(槳), 노(櫓) 그리고 넓은 적재실을 갖추고 있었다"[도널드 프리먼(2016), 노영순 역, 『태평양: 물리 환경과 인간 사회의 교섭사』, 선인, p. 72].

합해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그 본격적인 위용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3. 19세기 자본주의 세계체계 내 중요한 분기점: 미국 주도 아시아-태평양 세계의 등장

위르겐 오스트함멜은 19세기 주요 세계사적 사건들이 아시아와 태평양이 연결되면서부터 만들어졌다고 지적한다.⁷⁸ 예컨대 스페인을 패퇴시킨 미국은 자국 내 서부로의 팽창에 만족하지 않고, 태평양으로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19세기까지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조공체계는 동아시아 해역을 통해 도전해 온 일본에 의해 무너졌고(예로 들면 청일전쟁 당시 풍도해전과 황해 해전), 그 결과 동중국해는 일본의 내호가 되어버렸다. 나아가 아편 및 차(tea) 무역 이래 바닷길 및 해상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영국은 19세기 후반부터 제국주의의 후발주자이자 해양세력인 일본에 의해 서서히 밀리기 시작했다.⁷⁹

분명 19세기까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던 지역은 서유럽 중심의 대서양 세력들이었다. 15세기를 전후로 상업 팽창의 전성기를 맞이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인 밀라노, 제노바, 베네치아 등은 상당할 정도의 교역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또 이를 유지시킴에 따라 상업자본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네덜란드는 어업의 발달 및 풍차의 발명, 농업 기술과 조선기술의 발달 그리고 섬유생산을 통해 산업발전의 기초를 마련

78 Osterhammel, J. (2014),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A Global History of the Nineteenth Century*. Princeton, NJ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63.

79 영국은 1899년부터 1931년 사이 ① 중국과의 직접교역액, ② 중국 내 거주인구, ③ 중국에서 운영 중인 자국의 회사 숫자, ④ 중국 내 선박 배수량, ⑤ 중국에 대한 투자액 등에서 모두 일본에 추월당했다[Duus, P. (1989), "Trade and Investment," in Duus, P. R. H. Myers, and M. R. Peattie (Eds.), *The Japanese Informal Empire in China, 1895-1937*,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3].

하는 한편, 발트해와 북해에서 거래되는 곡물과 군수품에 대한 통제를 획득함으로써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헤게모니를 획득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당시 쇠퇴하던 포르투갈의 아메리카 무역망을 건네받음으로써 아메리카 지역에서 나오는 설탕, 귀금속 및 기타 원자재 무역에 본격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와의 무역관계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자본주의 세계경제 내 무역과 금융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⁸⁰ 네덜란드와 유사하게 영국 역시 상업 자본과 국가의 해군력을 활용해 국제무역에서 입지를 넓혀갈 수 있었다.

그러나 19세기를 넘어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유럽세력들의 글로벌 헤게모니는 시나브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태평양으로의 진출 및 그로 인해 형성된 아시아와 태평양 세계의 결합은 19세기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새로운 분수령이 되었다.

19세기 미국의 성장 및 팽창속도는 눈이 부실 정도였다. 1750년부터 198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국제적 산업화 단계를 국가별·지역별로 비교 분석한 폴 베이로크(Paul Bairoch)는 미국이야말로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는 예외적 성장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1750년부터 1830년까지 미국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고(1750년 120만 명에서 1830년 1,290만 명으로 증가), 산업화의 확산으로 인해 같은 시기 제조업 생산량은 거의 50배나 증가했다. 그 결과 1830년대 미국은 세계 6위권의 산업 강대국으로 올라선다.⁸¹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20세기가 시작될 때쯤 미국은 이미 영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산업국가가 된다.⁸² 한 예로, 제조업 생산량에서 영국을 추월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인 1940년대가 아니라 1900년이다. 그리고 같은 시기 전 세계 제조업 발전 부분에서 미국은 영국보다 더 많은 비중

80 Arrighi (1994), p. 139.

81 Bairoch, P. (1982), "International Industrialization Levels from 1750 to 1980,"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11(2), p. 291.

82 Bairoch (1982), p. 283.

을 차지하기 시작했다.⁸³ 또한 1인당 산업화 수준에서도 미국은 1913년을 기점으로 영국을 앞서나갔다.⁸⁴ 전반적인 산업 잠재력에서도 미국은 1900년을 기점으로 영국을 추월했다.⁸⁵ 베이로크의 추정치에 따르면, 1913년에 세계 산업생산량의 32%가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폴 케네디(Paul Kennedy) 또한 ‘에너지 소비량’, ‘철 및 강철 생산’에 있어 미국이 영국을 뛰어넘은 시기가 1890년대라고 주장했다.⁸⁶

그럼에도 왜 이 당시에는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가 빠르게 전파되지 않았을까? 이와 관련해 베이로크는 미국의 경우 급속한 확장 속도와 빠른 성장이 오히려 미국의 우위를 뒤늦게 파악하게 만든 요인이었다고 한다. 18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산업 생산량은 전 세계 산업 생산량의 15% 수준이었는데, 불과 20-30년 만에 약 2배가 오른 것이다. 가파른 성장세가 오히려 미국의 경제적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규모와 미국이 가진 지리경제적 요인(유럽대륙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 그리고 원자재 및 농산물과 같은 자원의 활용)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제조 상품은 상대적으로 국제무역에서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했는데, 이런 이유로 미국의 경제적 역량이 뒤늦게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베이로크는 덧붙였다.⁸⁷

비록 미국이 상대적으로 뒤늦게 글로벌 헤게모니를 영국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1900년을 기점으로 세계 경제의 패권이 서서히 미국으로 움직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맥락에서 래디카 데사이(Radhika Desai)는 새롭게 떠오른 신흥 산업국가들(일본, 러시아, 미국, 독일)은 당시 영국의 글로벌 헤게모

83 Bairoch (1982), p. 275.

84 Bairoch (1982), p. 281.

85 Bairoch (1982), p. 292.

86 Kennedy, P. (1989),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New York: Random House, pp. 200-201.

87 Bairoch (1982), p. 297.

니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들이라 칭했고,⁸⁸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은 19세기 중-후반, 세계 경제가 “유일한 항성인 영국을 둘러싸고 회전하는 태양계가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⁸⁹

다만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19세기부터 자본주의 세계체계 내에서 글로벌 헤게모니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되었음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이 자신들의 글로벌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과 연결되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아시아 및 태평양으로의 진출, 이에 따라 시나브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아시아와 태평양 세계의 연결에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⁹⁰

실제 미국이 태평양지역으로 진출함에 따라,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무게 중심은 “대서양 중부를 벗어나 환태평양 지역(the Pacific Rim)으로 조금씩 옮겨가게 됐다.”⁹¹ 브루스 커밍스가 지적했듯, 국제 정세와 관련된 연구자들 대부분이 대서양주의 및 미국과 유럽의 관계에 초점을 두지만, 실제 미국이 글로벌 헤게모니를 잡게 된 것은 19세기 이래 지속적으로 이어진 서부 및 태평양지역으로의 진출과 깊은 연관이 있다.⁹² 물론 미국이 대서양 너머의 국가들보다 태평양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외교에 더욱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태평양 지역의 주인이 됨으로써 미국은 대서양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포괄하는 유일한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88 Desai, R. (2013), *Geopolitical Economy: After US Hegemony, Globalization and Empire*. London: Pluto Press, p. 43.

89 에릭 홉스봄(1998), 김동택 역, 『제국의 시대』, 한길사, p. 550.

90 그럼에도 아시아와 태평양 세계의 연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부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후속연구에서 논하고자 한다.

91 데이비스 노먼(2023), 왕수민 역, 『유럽 하나의 역사』, 예경, p. 56.

92 브루스 커밍스(2011), 박진빈·김동노·임종명 역, 『바다에서 바다로: 미국 패권의 역사』 서해문집, pp. 23-24.

4. 결론을 대신하여

본 연구에서 저자는 자본주의 세계체계 내 19세기의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미국 주도 아시아-태평양 세계의 등장 및 부상을 주장했고, 유럽-대서양 세계와 구분되는 미국만의 정체성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해명하고자, 우선 기존 세계체계 연구자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해보았다. 이는 분명 세계체계 논의에서 흥미로운 문제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동안 세계체계 연구자들은 19세기를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는 시공간으로 묘사했고, 또 그중에서도 영국 중심의 글로벌 헤게모니가 위세를 떨치던 시기로 분석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적했듯, 19세기는 유럽-대서양 국가들, 특히 영국이 글로벌 헤게모니를 가진 시기임은 분명하나, 19세기 말부터 영국의 헤게모니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조반니 아리기가 제시한 헤게모니의 성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아리기는 헤게모니 국가(패권국)가 가지는 첫 번째 성격이 모방성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헤게모니를 지배적 국가의 성과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모방하게끔 하는 모범국이 되고, 또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지배적 국가의 발전경로를 뒤따르도록 만드는 것이라 표현했다.⁹³ 그러나 19세기 말 이후 영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을 뒤따르게 하는 모범적인 예시를 보여주지 못했다. 반대로 미국은 더욱 유럽-대서양 세계와 구분하려는 물질적-이념적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또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진출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둘째, 아리기는 헤게모니 국가(패권국)의 특징으로 지도력을 제시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미국은 유럽-대서양 세계의 지도력보다, 자신들만의 세력권을 아시아-태평양 내에서 확장·공고히 하려 했다. 실제 19세기 말 이래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지경학적 팽창을 지속시켜 나갔

93 지오반니 아리기·비벌리 J. 실버(2008), 「머리말」, 『체계론으로 보는 세계사』, 모티브북, p. 59.

는데, 그 영역은 쿠바를 포함해 하와이 및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하와이 너머의 아시아 대륙인 중국과 필리핀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공간(geo-space)이었다.⁹⁴

후속연구에서는 19세기 이래 미국이 만들어낸 아시아-태평양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그리고 여기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미국 주도 아시아-태평양 세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세계를 주도한다고 했을 때, 아시아-태평양 세계 내 다른 국가들(예컨대 일본과 러시아)은 어떻게 미국과 관계를 맺었는지, 나아가 유럽-대서양 세계와 구분되는 아시아-태평양 세계만의 공통된 정체성은 무엇인지 등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런 한계점들로 인해 본 연구는 시론적 연구에 만족함과 동시에 후속연구에서 다룰 것임을 알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데이비스 노먼(2023), 왕수민 역, 『유럽 하나의 역사』, 예경.
- 도널드 프리먼(2016), 노영순 역, 『태평양: 물리 환경과 인간 사회의 교섭사』, 선인.
- 모테기 도시오(2018), 박준형 역, 『중화세계 붕괴사: 19세기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재편』, 와이즈플랜.
- 박지배(2017), 『근대세계체계에서 러시아와 영국의 무역』, 신서원.
- 백낙청(1998),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 비평사.
- 백낙청(2009), 「한반도에서의 식민성 문제와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 『이중과제란: 근대 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 창작과 비평사, pp. 29-50.
- 백승욱(2005), 「역사적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역사: 세계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미국 의 세기는 끝났는가?』, 그린비, pp. 13-51.
- 백승욱(2020), 「미국헤게모니 형성기 동아시아 국가간체계 질서의 변동: 윌러스틴의 이론 자원으로 검토한 냉전 형성 과정과 중국 변수」, 『아시아리뷰』 10(2).
- 브루스 커밍스(1986), 김자동 역,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94 LaFeber, W. (1989), *The American Ag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t Home and Abroad since 1750*, New York: W. W. Norton.

- 브루스 커밍스(2011), 박진빈·김동노·임종명 역, 『바다에서 바다로: 미국 패권의 역사』, 서해문집.
- 아카리 이리에(2016), 조진구·이중국 역,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연암서가.
- 에릭 홉스봄(1998), 김동택 역, 『제국의 시대』, 한길사.
- 이매뉴얼 윌러스틴(1994), 성백용 역,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창작과 비평사.
- 이매뉴얼 윌러스틴(1999), 나종일 외 역, 『근대세계체계 I』, 까치.
- 이매뉴얼 윌러스틴(2003), 김인중 외 역, 『근대세계체계 III』, 까치.
- 이재광(1996), 「19세기 세계체계의 변동과 한국·일본의 자본주의 편입과정 비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현진(1993), 『제 3세계연구: 종속, 발전 및 민주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위르겐 오스트함멜(2021), 박종일 역, 『대변혁: 19세기의 역사풍경』, Vol. 1, 한길사.
- 윤상우(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
- 정문수(2022), 「태평양 횡단의 역사(1494-1794)」 『글로벌지역학연구: 지역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학술정보, pp. 127-162.
- 지오반니 아리기·포궁 호이·크리쉬네투 레이·토마스 에틀리히 라이퍼(2008), 최홍주 역, 「지정학과 대형금융」, 『체계론으로 보는 세계사』, 모티브북, pp. 72-163.
- 지오반니 아리기·비벌리 J. 실버(2008), 최홍주 역, 「머리말」, 『체계론으로 보는 세계사』, 모티브북, pp. 15-71.
- 하세봉(2016), 「새로운 상상의 가능성: 해양사 연구」, 『역사와 경계』 101.
- Abu-Lughod, J. L. (1989), *Before European Hegemony: The World System A.D. 1250-135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rrighi, G. (1994), *The Long Twentieth Century*, London and New York: Verso.
- Arrighi, G. (2007), *Adam Smith in Beijing: Lineag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Verso.
- Arrighi, G. (2009), "China's Market Economy in the Long Run," in Ho-fung Hung (Eds.), *China and the transformation of global capitalism*,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22-49.
- Arrighi, G., and B. J. Silver (1999), "Introduction," in Giovanni Arrighi and Beverly J. Silver (Eds.), *Chaos and Governance in the Modern World System*, Minnesota and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1-36.
- Arrighi, G., T. Hamashita, and M. Selden (2003), "Introduction: the rise of East Asia in regional and world historical perspective," in Giovanni Arrighi, Takeshi Hamashita, and Mark Selden (Eds.), *The Resurgence of East Asia: 500, 150 and 50 year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16.
- Bairoch, P. (1982), "International Industrialization Levels from 1750 to 1980,"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11(2).
- Basu, D. (1979), "The Peripheralization of China: Notes on the Opium Connection," in Goldfrank W. L. (Eds.), *The World System of Capitalism: Past and Present*,

-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pp. 171-187.
- Braudel, F. (1982), *Civilization & Capitalism: 15th-18th Century: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hina Imperial Maritime Customs* (1878), Statistical series, No. 4, Reports on trade at the treaty ports.
- MCARAROT: Huang, F, Lin MH, and Ueng JI. (1997), *Maritime customs annual returns and reports of Taiwan, 1867-1895*, Volume 1, 2, Taipei: Institute of Taiwan History, Academia Sinica.
- Desai, R. (2013), *Geopolitical Economy: After US Hegemony, Globalization and Empire*. London: Pluto Press.
- Dirlik, A. (1992), "The Asia-Pacific Idea: Reality and Representation in the Invention of a Regional Structure," *Journal of World History* 3(1).
- Duus, P. (1976), *The Rise of Modern Japa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Duus, P. (1989), "Trade and Investment," in P. Duus, R. H. Myers and M. R. Peattie (Eds.), *The Japanese Informal Empire in China, 1895-1937*,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3-9.
- Duus, P. (1995), *The Abacus and the Sword: The Japanese Penetration of Korea, 1895-1910*.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ng, R. Y. (1986), *Economic Imperialism in China: Silk Production and Exports, 1861-1932*,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ranks, A. G and B. K. Gills. (1993), "The 5,000 year World System: An interdisciplinary introduction," in B. K. Gills and A. G. Frank (Eds.), *The World System: Five Hundred Years or Five Thousan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3-58.
- Frank, A. G. (1998),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ills, B. K. (1995), "Capital and Power in the Processes of World History," in Sanderson, S. K. (Ed.), *Civilization and World Systems: Studying World-historical Change*,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pp. 136-162.
- Goldstone, J. A. (1991). *Revolution and Rebellion in the Early Modern World*,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reenhalgh, S. (1988), "Supranational Process of Income Distribution," in E. A. Winckler and S. Greenhalgh (Eds.), *Contending Approaches to the Political Economy of Taiwan*, Armonk, New York, London: M. E. SHARPE, pp. 67-100.
- Hamashita, T. (2003), "Tribute and treaties: Maritime Asia and treaty port networks in the era of negotiation, 1800-1900," in G. Arrighi, T. Hamashita, and M. Selden (Eds.), *The Resurgence of East Asia: 500, 150, and 50 year perspectiv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7-50.
- Ikeda, S. (1996), "The History of the Capitalist World-System vs. the History of East-

- Southeast Asia," *Review* 19(1): 49-77.
- James Z. L. and F. Wang (2002). *One Quarter of Humanity: Malthusian Mythology and Chinese realities, 1700-200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a, C. M. (1995), *Japanese Colonialism in Taiwan: Land Tenure, Development, and Dependency, 1895-1945*, Boulder.
- Keiji, N. (1980), *日本經濟史*, 東京: 岩波書店.
- Kennedy, P. (1989),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New York: Random House.
- Kwon, R. (2011), "Hegemonies in the World-System: An Empirical Assessment of Hegemonic Sequences from the 16th to 20th Century," *Sociological Perspective* 54(4).
- LaFeber, W. (1989), *The American Ag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t Home and Abroad since 1750*. New York: W. W. Norton.
- Li, B. Z. (1998), *Agricultural Development in Jiangnan, 1620-1850*. New York: St. Martin's Press.
- Moulder, F. V. (1977), *Japan, China, and the modern world-econom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lan, P. (2015), "The Silk Road by Land and Sea," *Horizons: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4.
- Osterhammel, J. (2014),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A Global History of the Nineteenth Century*. Princeton, NJ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omeranz, K. (2000).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omeranz, K. (2001), "Is There an East Asian Development Path? Long-Term Comparisons, Constraints, and Continuities,"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44(3), pp. 322-362.
- Rodriguez, N. 2023. *Capitalism and Migration: The Rise of Hegemony in the World-System*, Cham,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AG.
- Ru, S. H. (2020a), "China's Incorporation Process into the Capitalist World-Economy, 1780s-1890s, PhD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 Ru, S. H. (2020b), "Sorry, But G. Arrighi Is Not Almighty: Why Did He Fail to Explain China's Process of Incorporation into the Capitalist World-Economy?" *Journal of Asian Sociology* 49(2).
- Ru, S. H. (2022), "Historical Geographies of Korea's Incorporation: The rise of underdeveloped and modernized colonial port cities,"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76.
- Şahan S. K. (2020), "Capitalism and nationalism in the longue durée: Hegemony, crisis, and state-seeking nationalist mobilization, 1492-201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61(4).

- Selden, M. (2015), "East Asia in world history, 1750–21st century," in J. R. McNeill and K. Pomeranz (Eds.), *The Cambridge World History Volume VII, Part 1*,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3–525.
- So, A. Y. (1984), "The Process of Incorporation into the Capitalist World-System: The Case of China in nineteenth century," *Review* VIII(1).
- So, A. Y. and S. Chiu (1995), *East Asia and World-economy*. Newbury Park, CA: Sage Publishers.
- Sugihara, K. (2003), "The East Asian Path of economic development: a long-term perspective," in G. Arrighi G, T. Hamashita, and M. Selden (Eds.), *The Resurgence of East Asia: 500, 150, and 50 year perspectiv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78–123.
- Trimberger, E. K. (1978), *Revolution from Above: Military Bureaucrats and Development in Japan, Turkey, Egypt, and Peru*. New Brunswick: New Jersey.
- Wallerstein, I. (1974a), *The Modern World-system I*, New York: Academic Press.
- Wallerstein, I. (1974b),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Concepts for Comparative Analysi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16.
- Wallerstein, I. (1976), "A World-System Perspective on the Social Scienc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27(3).
- Wallerstein, I. (1992), "Geopolitical Strategies of the US in a Post-American World," *Humboldt Journal of Social Relations* XVIII(1), pp. 217–233.
- Wallerstein, I. (1999), "The West, capitalism, and the modern world-system," in T. Brook and G. Blue (Eds.), *China and Historical Capit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0–56.
- Wallerstein, I. (2011), *Modern World-System IV*.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ong, R. B. (1997). *China Transformed: Historical Change and the Limits of European Experien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24년 12월 31일, 심사완료일: 2025년 2월 4일, 게재 확정일: 2025년 2월 13일

ABSTRACT

A Tentative Search for a
Missing Link in World-Systems
Analysis (The Rise of the 19th-Century
American-Led Asia-Pacific World)

RU, SUNG HEE*

A Critical Appraisal of World-Systems Studies

In this study, I argue that the rise of the 19th-century US-led Asia-Pacific world is a missing link in world-systems analysis. World-systems researchers have described the 19th century as a period dominated by European countries, or have analyzed it as a time when the global hegemony centered on the United Kingdom was at its peak. In contrast, this study posits the Asia-Pacific world as a newly emerging region within the 19th century world-system, and points to the expansion of the 19th century United States into the Asia-Pacific world as the cause of its rise. As a first step towards conducting long-term research, this study has carried out a critical evaluation of past studies on world-systems analysis.

Keywords World-systems Analysis, Asia-Pacific World, 19th Century

* Assistant Professor, Bright Colleg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